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평가: 시스템, 행태 및 성과, 규제 측면을 중심으로

2019. 6. 14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본성

<발표 요지>

I. 서

- 국내 금융산업은 1990년대 자율화 정책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과 소비자보호 중심 개혁으로 시장 중심 금융패러다임을 강화
 - 지난 30년 국내 금융산업의 여정은 외부충격의 해소와 대내적 미비점 보완·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지속으로 시장구조, 행태, 경영성과, 감독규제의 패러다임적 변화에 해당

II. 금융의 역할과 한계

- 금융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나 중개위험을 분담할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적 특이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필요
 - ✓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업종 성격과 공공 인프라 기반, 내수적 특성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III.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현황과 이슈

-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형성은 크게 시스템의 개편, 성과 및 행태 측면의 변화, 정책효과로 나타남

(시스템 측면)

- 국내 금융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외 금융완충력 수준은 1990년대 개방화 이전 대비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증가와 은행권의 단기차입비율 안정, 민간의 해외투자 확대에 크게 개선

■ 지난 30여년 동안 연평균 10.5% 자산성장세와 예대업무 및 보험·연금 서비스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확대로 금융시스템의 다변화 기반이 마련

✓ 전체 경제 대비 금융산업 비중은 외환위기 극복 이후 7% 수준에도 이르렀으나 2000년대 들어 정체 또는 하락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화 및 겸업화 정책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은행권 및 지주회사 방식의 그룹화와 다각화를 촉진하고 시장구조의 안정화를 도모

✓ 한편 대형금융그룹의 실패로 인한 시스템 위험의 관리와 그룹 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 산업과의 복합리스크 통제 등 감독개선 요구도 상당

■ 개방화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외국인투자자의 참여와 소유비중이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위축되는 경향

✓ 장기적으로 주력 기업 및 업종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외환건전성 관리 등 자본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자본시장은 투자상품의 다양화와 외국계 투자자의 비중 확대, 연기금의 참여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이 제고되었으나, 일반 투자자를 위한 자산운용시장의 저변 확대가 긴급

✓ 특히 공공기금의 운용자산 확대에 대비하여 자산운용기관의 독립적 역할과 자산운용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도전 과제

■ 서민금융은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 포용적 정책지원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나, 저소득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부채 확대는 잠재 위험요인

(성과 및 형태 측면)

- 3대 금융권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금융회사의 혁신 및 모험 금융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역할분담이 미흡
- 자본규제 강화와 수익성 개선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본확충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긴요
- 개방, 자율, 겸업화, 대형화에 힘입어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개척을 통한 역외 부가가치 창출에는 아직 역부족

✓ 주요 글로벌 금융시장 및 해외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 자본수지 개선 효과 등 자본시장 업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중요해질 전망

(정책적 측면)

- 위기 과정에서 위기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조기에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정책방향에 따른 시장효과 확대와 정책당국에 의한 조율기능이 심화
- 사전 규정의 준수 및 이행, 개인별 또는 사안별 방식의 검사·제재는 금융시장의 자율성 약화와 자발적인 혁신을 제약

✓ 내부통제시스템 선진화나 감독정보에 의한 상시관리, 사후 기관제재의 활용 등 시스템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감독적 대안이 모색될 필요

- 소비자와의 사후적 분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로 소비자 입장에서의 실제 필요성이나 수용 가능성, 장기수익률 제고 등 순기능 창출이 여전히 미흡

✓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상황 및 필요성, 적합성,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

-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 효율성, 금융안정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고려하여 감독체계 개편작업이 지속

✓ 금융안전망 구축 관련 역할분담이나 정보공유, 사후처리 책임이 핵심과제

III. 종합평가

- 현재 금융안정은 실물경제의 호황과 금융위험의 완화에 있으므로 중장기 실물경제의 변화에 따른 금융효과에 대비해 나갈 필요

- 우선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금융의 대외건전성 확보는 금융시스템 자체와 전체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선결과제

- 그동안 금융을 통한 레버리지, 대형화와 양극화, 기술혁신에 의한 디지털 금융의 확산, 산업계열의 비은행 시장 지배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에 초점을 둘 필요

✓ 위험관리 역량과 시스템 안정성 간 적정 균형 확보를 위해 대출 중심에서 기술금융이나 장기금융, R&D 금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 개혁이 강화될 필요

-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고령화에 따른 장기금리 또는 미래성장률 변화 외에 저금리 하에서 성장세를 지속해 온 금융산업에 미칠 장기부채 위험 증대와 금융산업의 중장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
- 금융사기 또는 불법금융 등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적 또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
 - ✓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 등을 통한 처벌기준 강화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등을 마련
- 금융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합리적 선택이 정착될 수 있는 新 금융문화 형성을 위한 금융권의 참여와 노력이 긴요
 - ✓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의 개선/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
-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중앙회, 정부 간에 감독정보의 공유나 공동 검사 확대, 상시 협의체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협력·협업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
-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은 경기둔화 시기나 지역경제의 위축 등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성과 포용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탄력적인 정책 대응체계를 유지

IV. 맺음말

- 국내 금융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포괄적인 개혁과 금융안정성 개선으로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 국면이 가능하였으며, 선진금융의 벤치마크를 통해 글로벌 패러다임을 구축
- 향후 거시금융 여건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자본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 역량을 높여 나가고 합리적인 금융책임 분담에 의한 新 금융문화 형성으로 금융의 선도적·긍정적 역할을 강화해야 함

I. 서

II. 금융의 역할과 안정성, 그리고 한계

III.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현황과 이슈

IV.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V. 맺음말

- 국내 금융산업은 1990년대 자율화 정책 이후 두 차례의 위기국면을 지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국면을 유지
 -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금융감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민간)중심의 금융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실물경제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초래된 외화유동성 위기는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개혁과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강화
- 지난 30년 국내 금융산업의 여정은 외부충격의 해소와 대내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함으로써 시장구조, 금융참가자의 행태, 금융회사의 경영성과, 감독 및 규제에 지속적인 보완에 의한 패러다임적 변화(paradigm shifts)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편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적 변화는 금융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시각과 밀접히 관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변화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내재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연속적인 개혁과정에 해당
 - ✓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거나 선도하기 위한 역할분담이라 할 수 있으며, 금융발전 과정은 금융산업 자체의 내재적 취약성 완화 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 분담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거시금융 및 시장구조 측면, 행태 및 성과 측면, 규율 및 감독 측면을 재점검
 - 거시금융 및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신흥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제성장률이나 외환건전성, 금융자산의 축적, 대형화 및 경쟁구조 등 거시적·구조적 측면의 금융산업 변화를 고찰
 - 행태 및 성과 측면에서 수익성 및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의 권한 등을 통해 금융관행이나 문화적 측면의 변화를 점검
 - 규율 및 감독 측면에서는 법적 체계, 정책기조 및 역할, 검사 및 제재 관행, 감독체계 등 관련 이슈를 평가하고 금융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
- 본 발표는 과거(retrospective) 관점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적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국내 금융산업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이슈와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
 -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주요한 금융개혁과 금융산업의 성과, 규제감독 정책을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 금융산업이 해결해야 할 시스템적, 시장적, 정책적 측면의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

목차

I. 서

II. 금융의 역할과 안정성, 그리고 한계

III.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현황과 이슈

IV.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V. 맺음말

금융의 역할, 안정성 그리고 한계

- 금융의 역할은 우선 가계 및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점차 중개위험을 분담해 나가는 구조 (Levine, 1997)
 -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 또는 정보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자금조달이나 금융의 접근성이 중요
 - 금융의 적극적인 책임은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중개위험을 분담
 - 금융의 역할과 중개위험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은행 중심 또는 시장 중심 등 시스템적 특성도 존재
- 또한 금융발전이 진행될수록 금융시장의 연계성 또는 시장구조, 거시경제적 특이성으로 인해 시스템효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필요 (Stiglitz, 2010)
 - 금융발전에 따른 금융거래 규모의 확대, 복잡성, 연계성 등으로 인해 시스템 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
 - 금융시장의 개방이나 대외의존도 심화, 실물경제의 불균형 등이 금융시장을 통한 외화유동성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요구
 - 금융안정성 관리는 금융기관의 규제감독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 사후처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단을 필요
- 금융산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적 위상을 보유 (cf. Cecchetti and Kharroubi, 2015)
 - 예대업무, 위험, 중개, 자산관리 등을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익을 창출
 -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업종 성격 뿐만 아니라 공공 인프라 기반 등과 내수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특징

금융의 역할, 안정성 그리고 한계(계속)

- 한편 금융의 한계로서는 규모(volume) 측면에서 리스크 효과로 인한 상업적 한계로 시장실패를 보완할 필요
 - 부실위험은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며, 이는 금융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
 - 부실위험의 총체적(aggregate)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 상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의 배려 또는 참여, 직간접적인 개입이 허용
- 금융서비스의 수준(quality)은 소비자의 이해도나 관행, 경쟁구조, 금융문화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필요 (World Bank, 2017)
 - 금융서비스는 시장구조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금융지식이나 경험 등에 따라 협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필요
 - 금융소비자 보호는 공급자(asset side)로서 금융회사의 업종책임(professional liability)에 해당되며, 금융발전 단계 및 금융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수준이 결정되는 측면도 존재
- 금융서비스의 신뢰도(integrity) 유지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규율체계를 필요(Brunnermeier et al, 2009)
 - 금융서비스 기관은 자금의 제공자(liability side)를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경영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이를 위해 사전적, 상시적, 사후적인 규제와 감독이 법적으로 허용
 - 금융서비스 규제 및 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이 “사전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여건과 경영관행, 금융문화 형성에 귀결

목차

I. 서

II. 금융의 역할과 안정성, 그리고 한계

III.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현황과 이슈

1. 시스템 측면
2. 성과 및 행태 측면
3. 정책 측면

IV.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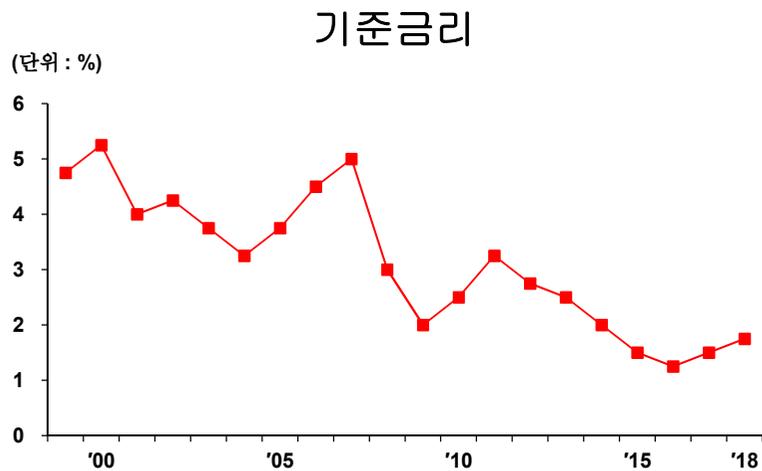
1.1 금융여건과 외환건전성 개선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노정된 외환부문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었음
 -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외화유동성 위기는 거시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외환건전성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장적, 거시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
- 2000년대 주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의 하향 안정화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저금리 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차입비용의 절감과 자산가격의 상승 등에 힘입어 예대업무 및 투자업무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성장성을 제고
 - 이자비용의 감소와 담보가치의 상승,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은 부실위험을 완화시킴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
- 1990년대 개방화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외환건전성은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증가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단기차입비율의 안정화, 민간부문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전체 금융산업의 외환건전성 등을 비롯한 대외 금융완충력은 개선

1.1 금융여건과 외환건전성 개선 (계속)

■ 한편 지속적인 실물경제의 글로벌화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확대 등 경제구조의 변화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외환건전성 유지를 위한 민간 금융의 역할분담은 **긴요해질 전망**

● 외환보유액을 중심으로 한 공적 부분의 역할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민간금융의 대외 패러다임이 **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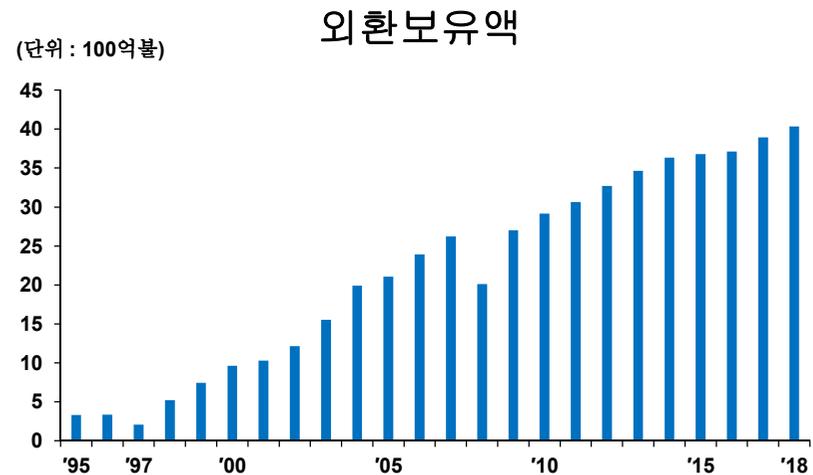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1. 예금취급기관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및 한국무역협회 자료 바탕으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2 금융자산 축적 및 금융기여도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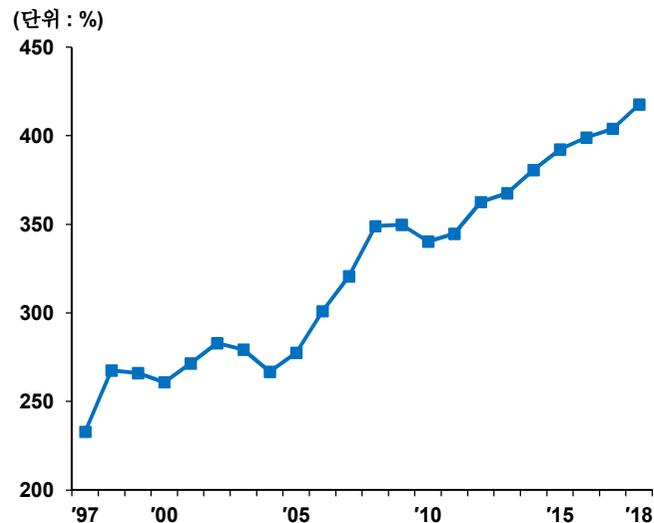
■ 금융권은 지난 30여년 동안 연평균 10.5%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예대업무 및 보험·연금 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실물경제의 성장에 따른 예금자산의 증가, 보험 등 장기금융의 확대,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의 자산축적 등은 금융자산의 지속성장 기반을 제공

■ 자본시장의 경우 국채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의 다변화 기반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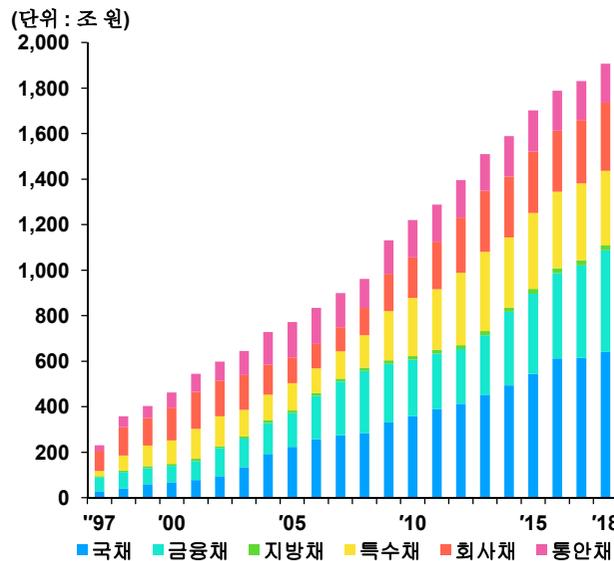
- 1997년 대비 채권시장의 시장가치는 8.2배, 명목 GDP 대비 1997년 43.5%에서 2018년 107.1%로 상승
- KOSPI 시장의 시가총액은 2000~2018년 동안 약 7.1배, KOSDAQ 시장의 경우 3.1배로 증가

GDP 대비 금융권 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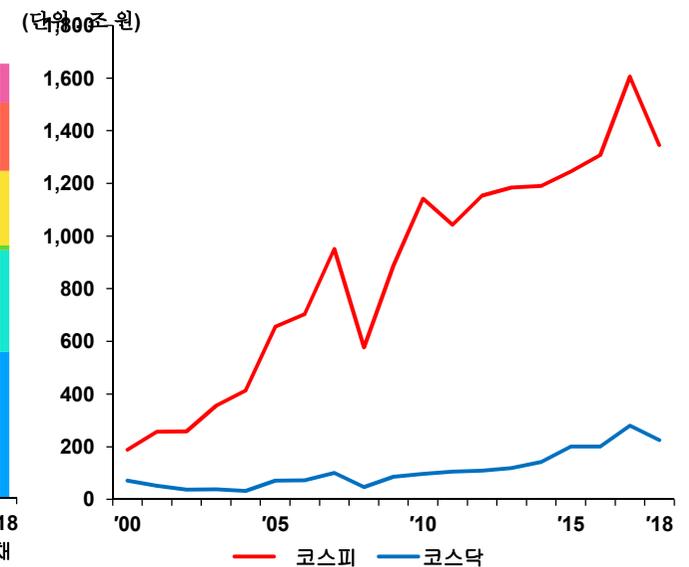
주: 1. 명목 GDP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바탕으로 자체 계산

채권시장 시가총액



자료: 한국금융연구원(14.12) 자료 및 통계청

주식시장 시가총액



자료: FnGuide

1.2 금융자산 축적 및 금융기여도 정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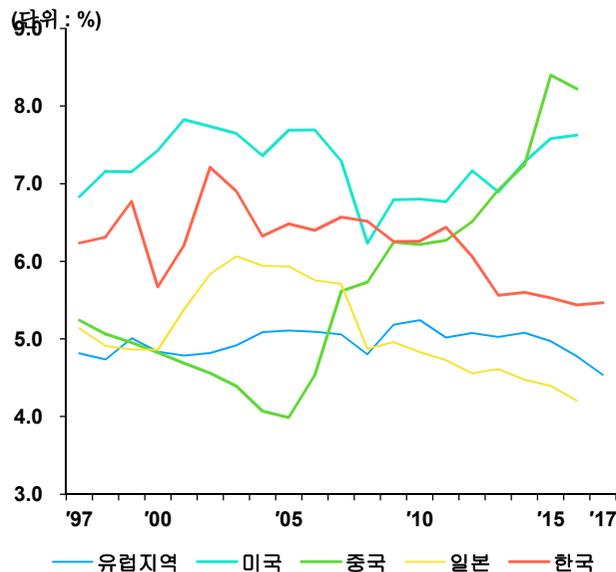
■ 한편 전체 경제에서 금융산업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하락하는 추세

- 국내 금융산업의 비중은 외환위기 극복 이후 7% 수준에도 이르렀으나 2000년대 들어 정체하거나 하락
-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05년 이후 약 0.2%p 내외의 정체 국면이 지속

■ 자본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채권 및 주식 소유비중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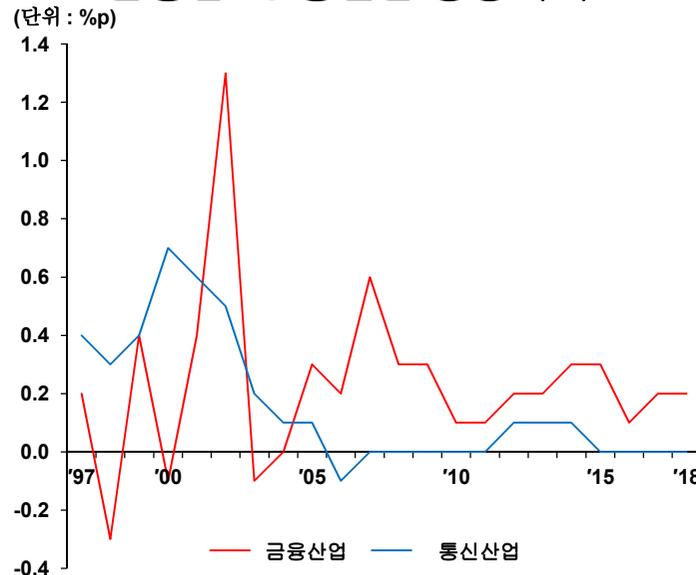
- 가계의 채권 및 주식 비중은 공모펀드 시장의 위축, 안전자산 선호, 부동산 자산의 선호 등으로 정체
- 연금 등 장기 금융자산 축적에 대한 유인을 감안할 때 가계금융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할 전망(Demirrauc-Kunt and Levine, 1999)

국가별 금융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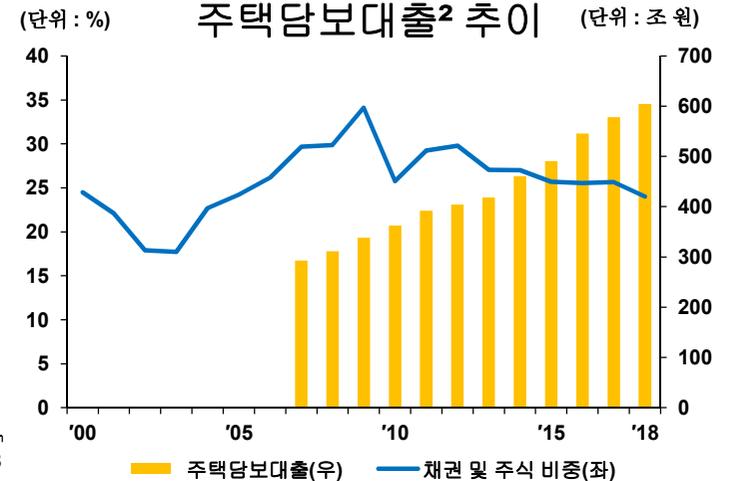
자료: OECD

금융업 vs 통신업 성장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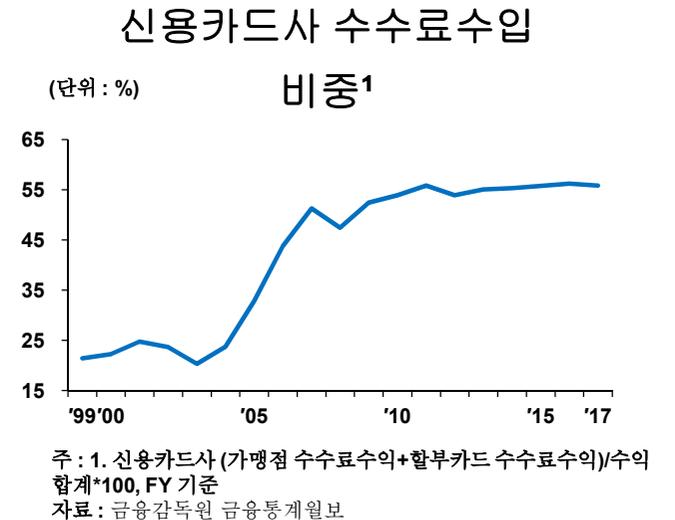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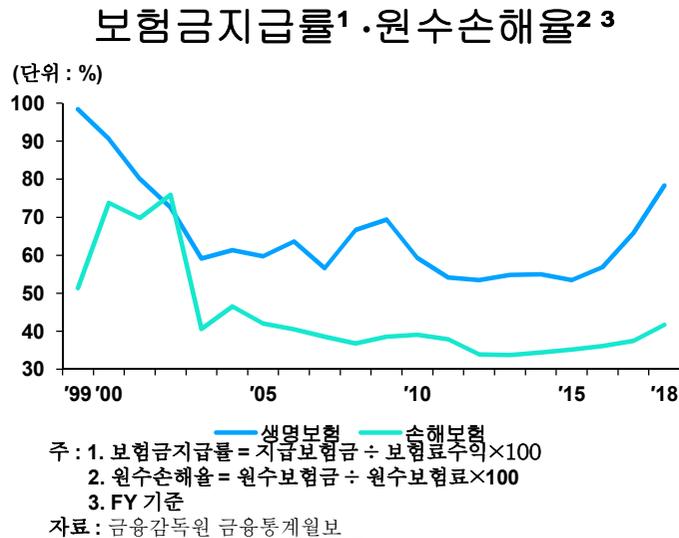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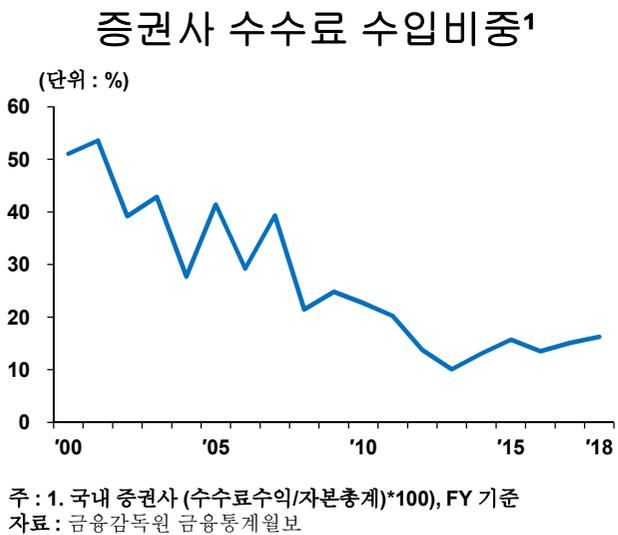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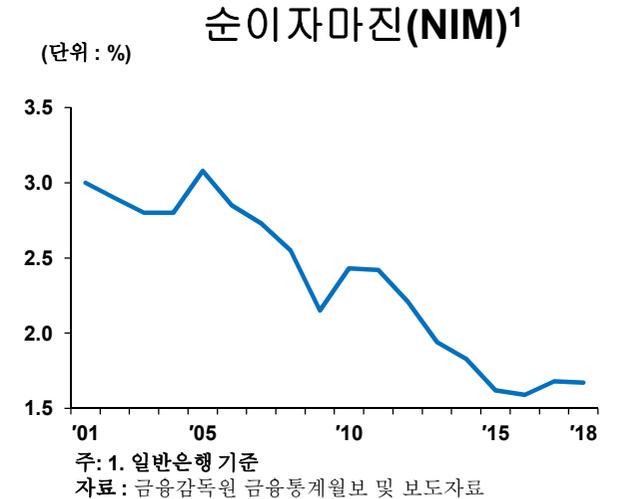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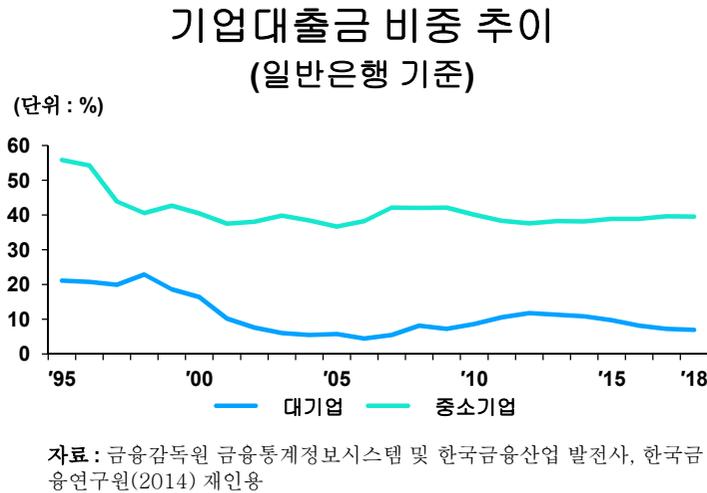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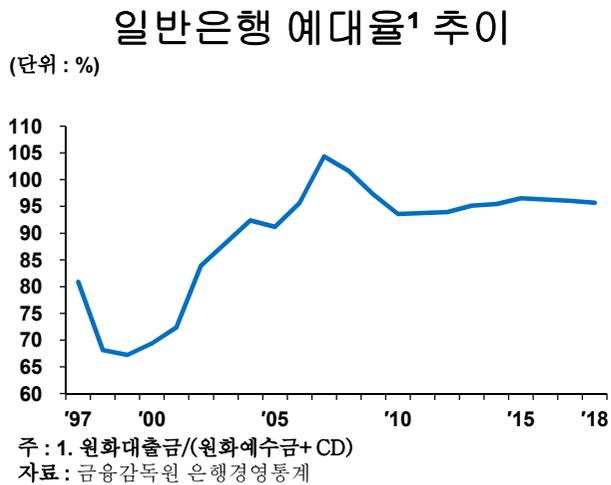
가계 금융자산¹ 및 주택담보대출² 추이



주: 1. 가계 및 비영리재단 채권 및 주식으로 '97부터 '01까지는 1968 SNA기준, '02부터 '07까지는 1993 SNA기준, '08부터 '18까지는 2008 SNA기준
2. 예금취급기관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3 금융중개기능과 변화

- 대기업 여신의 축소와 순이자 마진의 위축 등 은행권의 중개기능은 전반적으로 변화
-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창출 여력은 정체되는 양상
- 보험금지급율(생보) 및 손해율(손보) 등은 장기 안정화 국면에서 최근 상승하는 모습



1.4 그룹화 및 겸업화로 시장구조 개편

- 1990년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화 및 겸업화 정책은 외환위기 및 신용카드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방식의 그룹화와 겸업화를 촉진
 -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P&A 방식의 매각은 이중 업종의 진출을 통한 겸업화 기회를 창출
 - 추가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자회사 방식 위주에서 지주회사 방식의 종합금융그룹 형성이 촉진
- 구조조정과 연계된 금융그룹화는 선도 금융회사 주도의 경쟁구조가 정착되면서 신뢰도 제고와 시장구조의 안정화를 도모
 - 중소형사의 퇴출과 우량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등을 통한 인수 방식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기여
- 한편 금융그룹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서 대형 금융그룹의 실패 등으로 인한 시스템 위협의 효과적인 관리와 그룹 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 산업과의 복합리스크 통제 등 감독개선 요구도 상당

(단위: 조원)

	그룹 수	총자산 (%)	자기자본 (%)
금융지주 그룹	9	1,717.4 (38)	143.0 (36)
은행모회사 그룹	6	991.4 (22)	87.8 (22)
복합금융그룹	19	978.0 (22)	107.2 (27)
동종금융그룹	19	54.7 (1.2)	9.6 (2.5)

주: ()는 금융회사 전체 대비 비중
 자료: 이학영 국회의원, 통합감독제도 주요내용 및 도입 방안 (2018. 6. 26)

1.5 개방화와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확대

■ 개방화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된 것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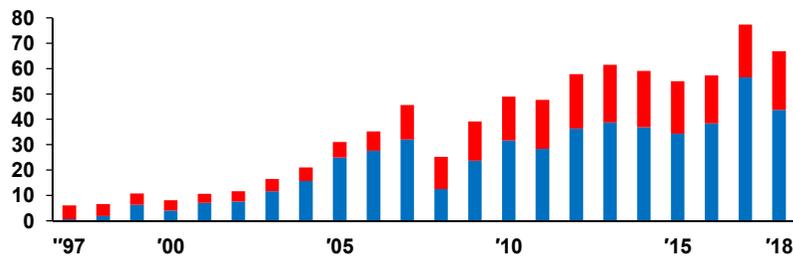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기관의 해외매각, 재민영화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와 소유비중이 점차 확대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와의 합작 및 직접 진출 등 글로벌 금융기관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현지화 유인은 위축되는 경향

■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비중 확대로 주요기업 및 업종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연계성 증가 등은 외환건전성 관리에 있어서 잠재이슈에 해당 (원종현, 2012)

- 선도 대기업 및 공기업, 금융산업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
- 글로벌 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른 채권투자 확대로 국내시장의 글로벌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 측면의 구조적 대응도 과제

외국인 투자자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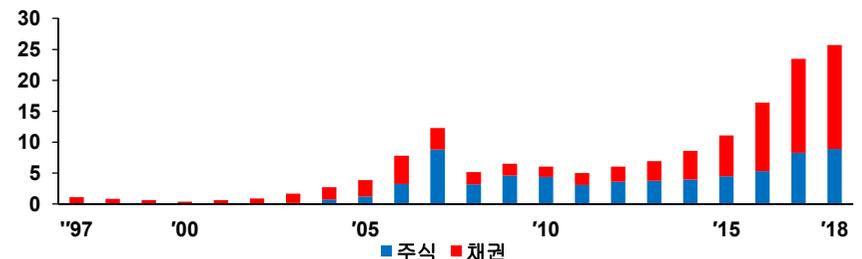
(단위 : 백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식 ■ 채권

내국인 해외투자 추이

(단위 : 백억 달러)



주 : 1. 주식 및 채권은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6 대형화에 따른 시장집중 또는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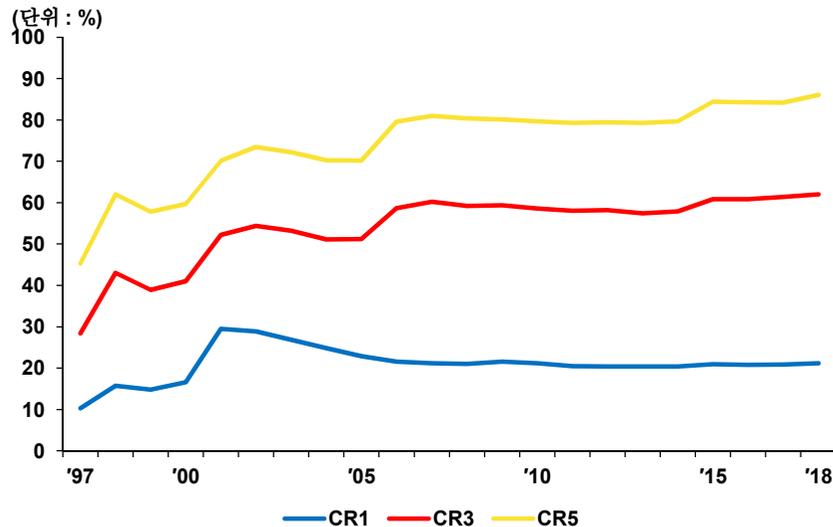
■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달성 등 대형화로 대형사 중심의 시장집중 구조가 형성

- 업종 내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개선
- 2금융권 구조조정은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한 겸업화 촉진으로 범위의 경제 창출에 기여

■ 대형화에 따른 상위 금융기관 자산의 시장점유율(CR3)은 2018년 기준 62.0% (은행), 65.7%(생명보험)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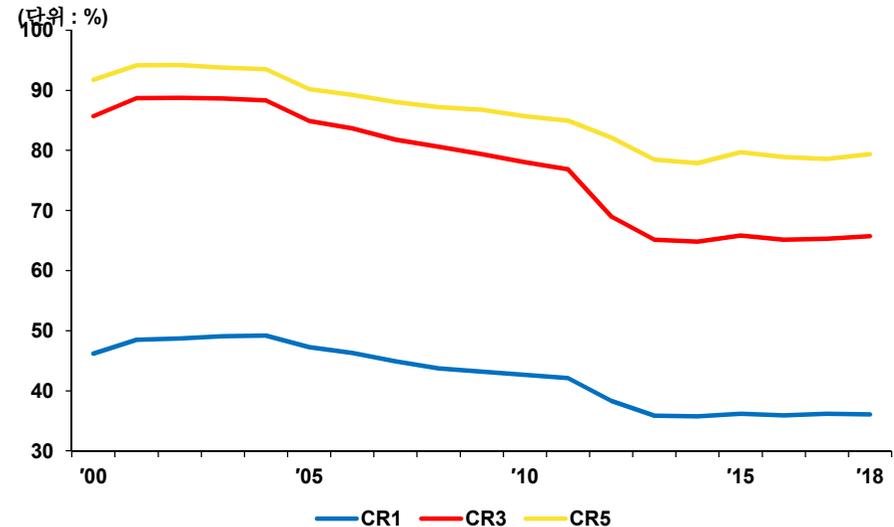
■ 대형 금융기관의 육성이 대외인지도 및 글로벌화 등 금융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대마블사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시장구조의 양극화로 인한 경쟁효과 약화 등 부정적 시각도 상당 (Cochrane, 2013)

은행시장 집중도



주: 1. 일반은행 총자산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생명보험업 집중도



주: 1. 국내 생명보험사 총자산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7 기관투자자 확대와 자산운용시장 재편

- 자본시장은 투자상품의 다양화와 중개기관의 확대, 외국계 자산운용기관의 참여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확대
 - 기관투자자의 확대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주주이익 제고에 효과적
- 한편 기관투자자의 확대가 일반 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에 비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자산운용시장의 저변 확대가 제한적
 - 개별 주식의 변동폭 확대와 투자기법의 다양화, 수수료 절감 등에 따른 패시브 펀드(passive fund)의 성장으로 앞으로 주주의 적극적인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
- 또한 국민연금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의 모니터링 기능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도 상당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운용자산의 급격한 확대로 국민연금 등이 주식 및 채권의 운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산운용기관의 협상력 또는 독립적 역할이 위축
- 이외에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운용신뢰도 제고나 투자수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 독립 자산운용사의 위축 등 시장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자산운용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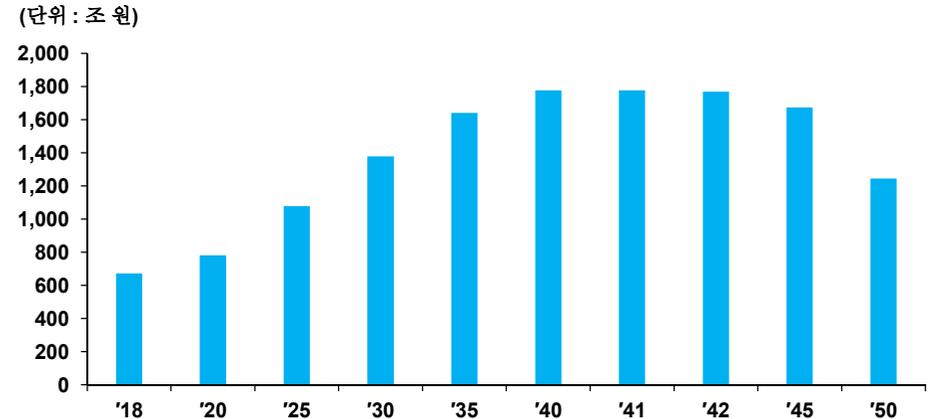
1.7 기관투자자 확대와 자산운용시장 재편 (계속)

2018년 기준 3대 연금의 운용자산 규모

기금명	자산규모(조원)
국민연금기금	638.9
공무원연금기금	18.2
사학진흥기금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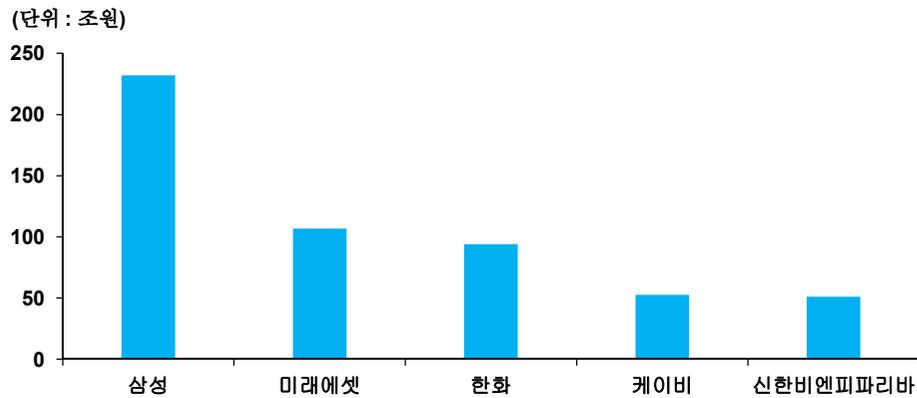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연금 적립기금 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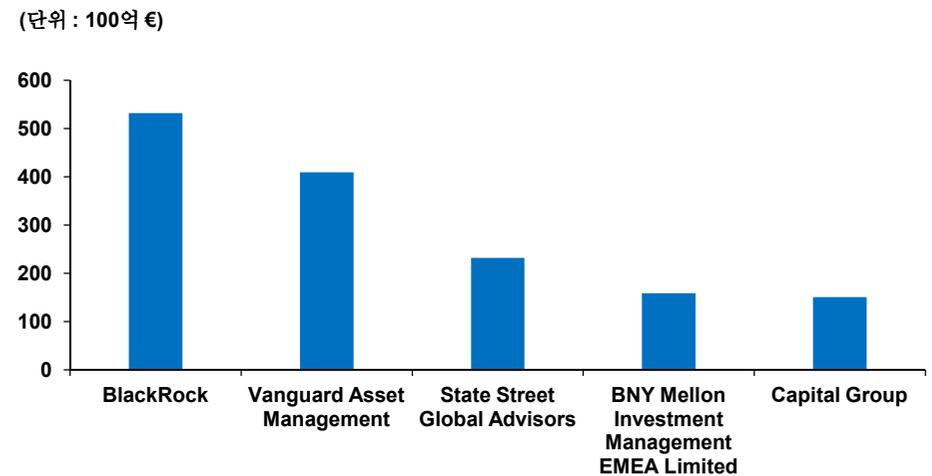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상위 5대 국내자산운용사의 AUM



자료: 금융투자협회

글로벌 5대 자산운용사의 규모



자료: Bloomberg

1.8 서민금융과 비제도권 금융의 포용

■ 국내 서민금융은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정책지원의 강화 등으로 접근성이 강화

- 저금리로 인한 신용위험의 감소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가치 상승 등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을 중심으로 가계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출기회가 확대
- 최고금리의 인하, 고금리대출의 전환, 중금리대출 확대, 장기연체채권의 상각 등 포용적 관점의 정책이 강화

■ 한편 저소득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부채 확대는 잠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저신용 대출자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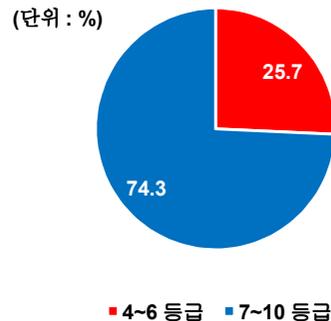
- 금융 접근성 확대에 따른 저소득 가계의 부채부담 증가는 부실위험을 증가시킬 우려
- 하위 등급 또는 소외계층 등에 대한 금리격차 심화는 제도권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증대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현황

저축은행명	고금리대출 비중 (%)	고금리 차주 비중 (%)	가계신용대출잔액 평균금리 (%)
A	84.6	86.8	23.9
B	54.1	66.7	20.4
C	72.7	86.0	22.8
D	72.8	82.9	22.1
E	66.5	77.3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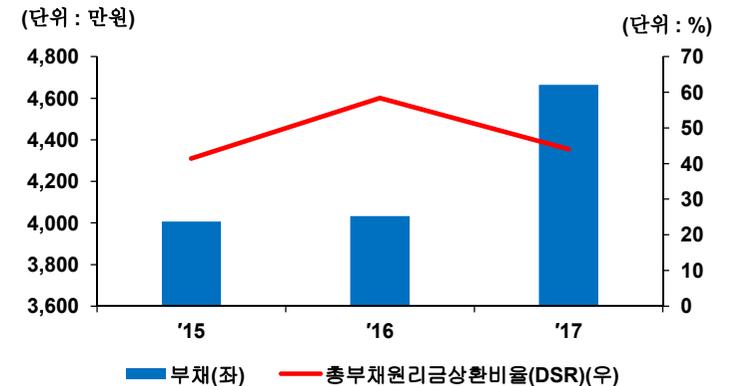
주: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비중 상위 5개사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대부업자의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18.6말)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저소득층 DSR 및 부채규모



주: 소득 1분위 가구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1.8 서민금융과 비제도권 금융의 포용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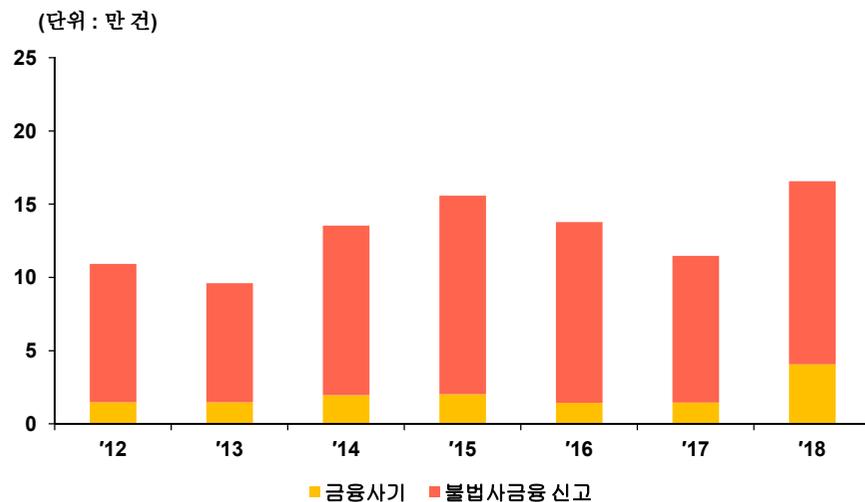
■ 또한 불법 사금융 및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금융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피해를 차단할 제도적 대응도 여전히 요구

-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대출이자의 편취나 사기성 투자기법을 활용한 불법행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

■ 주택금융의 경우 사적 계약 형태인 전세금에 대한 간접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권 밖의 금융행위로 인한 규제회피를 최소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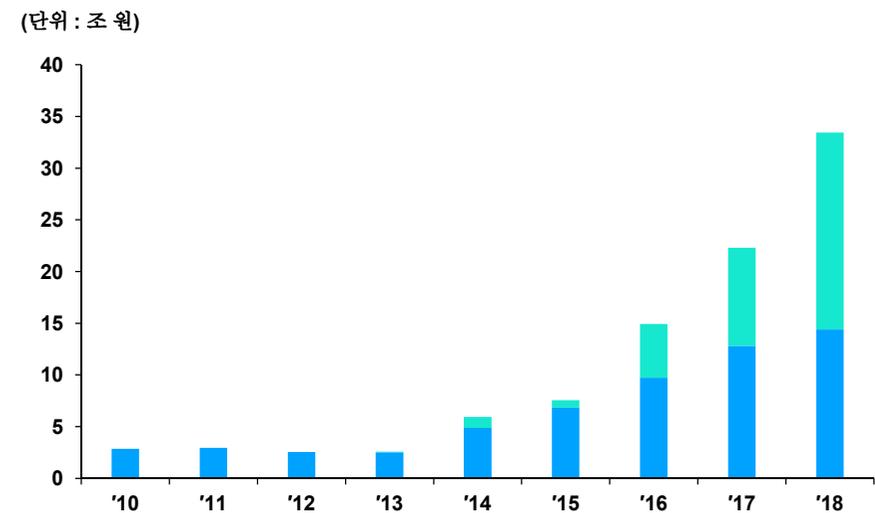
- 전세금은 주요한 주택금융 수단이나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임차금 및 전세금 보증잔액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2.1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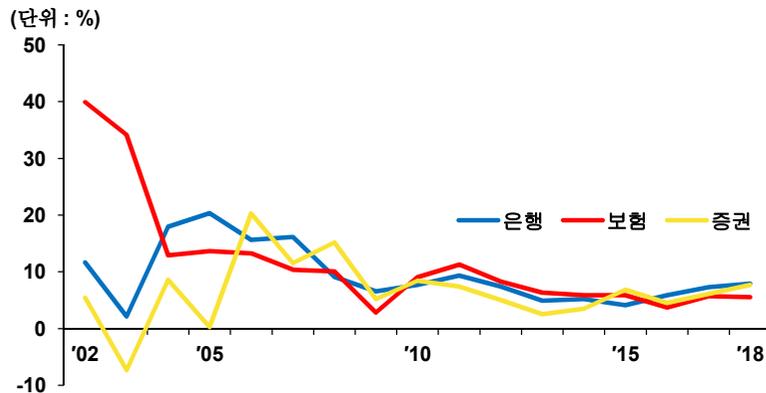
■ 3대 금융권(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은 두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흑자기조를 신속히 회복하고 유지

- 금융권의 수익성은 공적 자금을 활용한 지원과 제도개혁을 통한 신뢰도 회복, 금융권의 자구노력에 기인

■ 저위험-저수익 구조에 따른 안정성 중심의 경영은 금융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개선하였으나, 간헐적인 업종별 위기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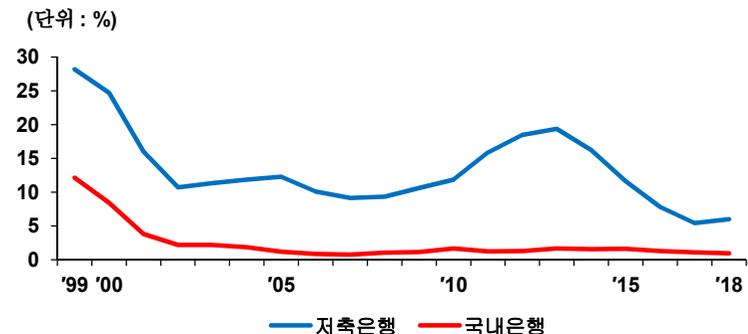
- 저금리 및 수출확대 등 우호적 거시경제 여건과 더불어 보증 및 담보 중심의 위험관리는 금융회사의 최종손실을 완화하는 한편 자산규모 확대에 따라 부실여신 비율도 전반적으로 하락
- 그러나 신용카드 사태나 저축은행 PF 문제, 자본확충 지원,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 국지적 시스템 위험과 정책실패 사례도 발생

업종별 ROE 추이



주: 일반은행, 생명보험, 국내 증권사 회계연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 및 저축은행 부실여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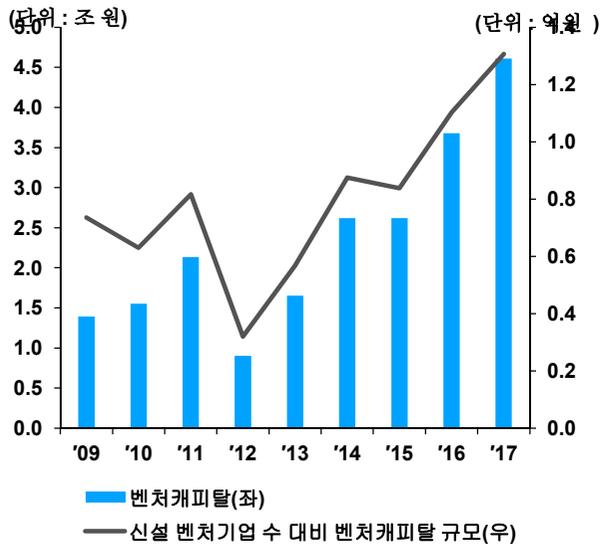


주: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1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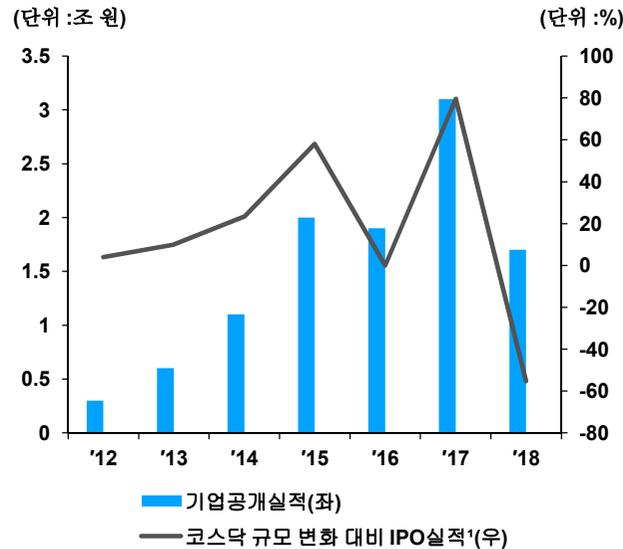
- 금융회사의 혁신이나 모험적 금융 등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적극적인 역할분담은 아직까지 부족
 - 글로벌 또는 선진 모델 등을 모방(fast follower)하려는 노력은 높았지만, 국내시장 위주의 시장안정과 영업기반 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 형성은 상장기준의 완화, 세제혜택, 매칭 펀드의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참여 등으로 양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 금융회사에 의한 적극적인 리더십은 아직 미흡

벤처캐피탈 펀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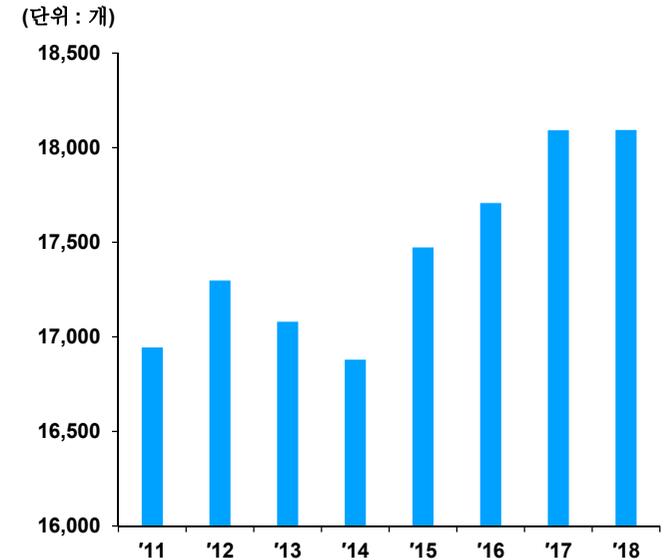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코스닥 시가총액 변화 대비 IPO 실적



주: 1. (코스닥 기업공개실적/코스닥 시가총액 증감액)*100
자료: 통계청자료 바탕으로 재계산

Inno-biz 기업 수 추이



자료: 통계청

2.2 자본력 및 자본적정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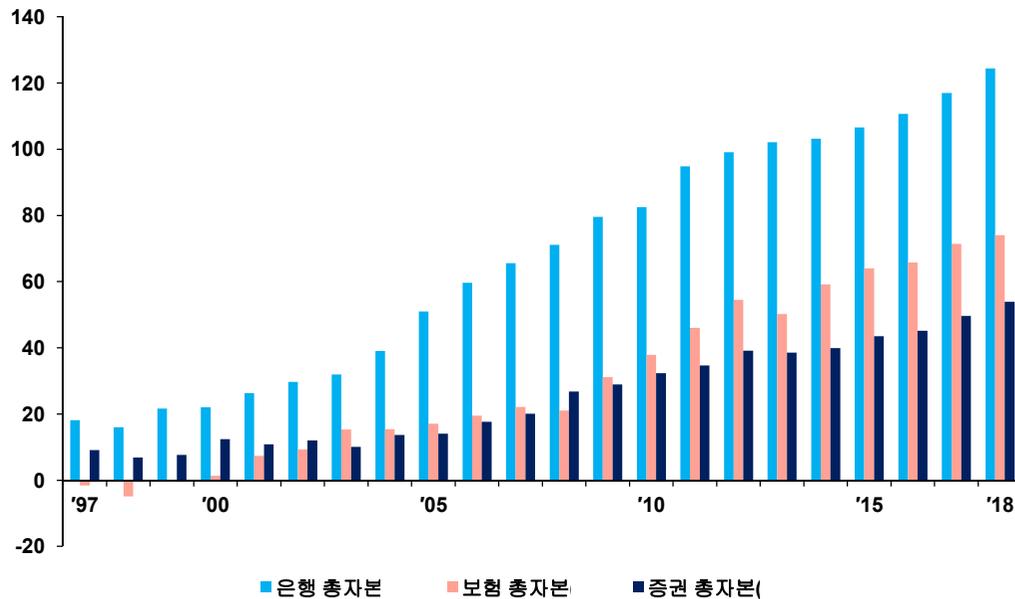
■ 금융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본규제 강화와 수익성 개선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력은 크게 개선

- 타 업종의 경우 금융업종별 상황이나 특성 등을 감안한 탄력적 정책으로 업종간 일관성이 훼손된 측면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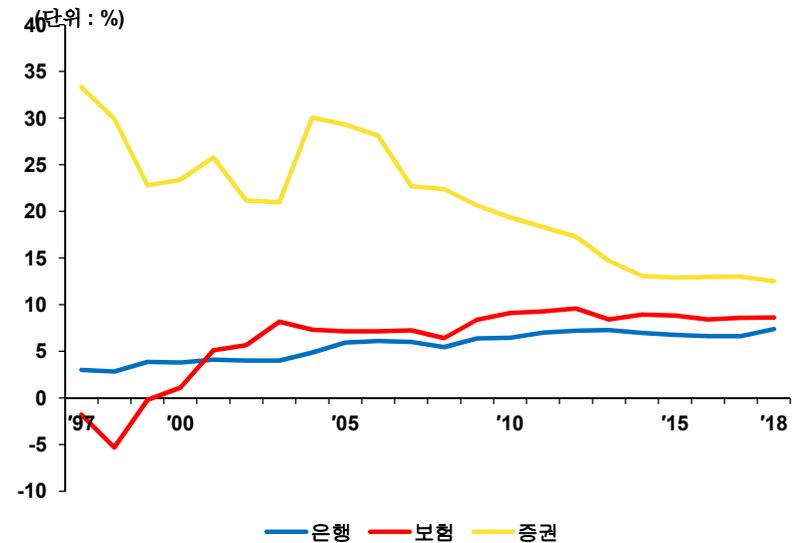
■ 금융회사의 자본규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 필요

- 글로벌 자본규제에 대응한 선제적 채택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정성은 지표산정 방식에 따라 변동성이 불가피
- 글로벌 금융규제 이후 자본규제의 강화와 레버리지 축소, 주주자본의 손실부담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일관성을 감안하여 원칙에 충실할 필요 (Admati and Hellwig, 2013)

3대 업종의 총자본 추이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추이



주: 일반은행, 생명보험, 국내 증권사 회계연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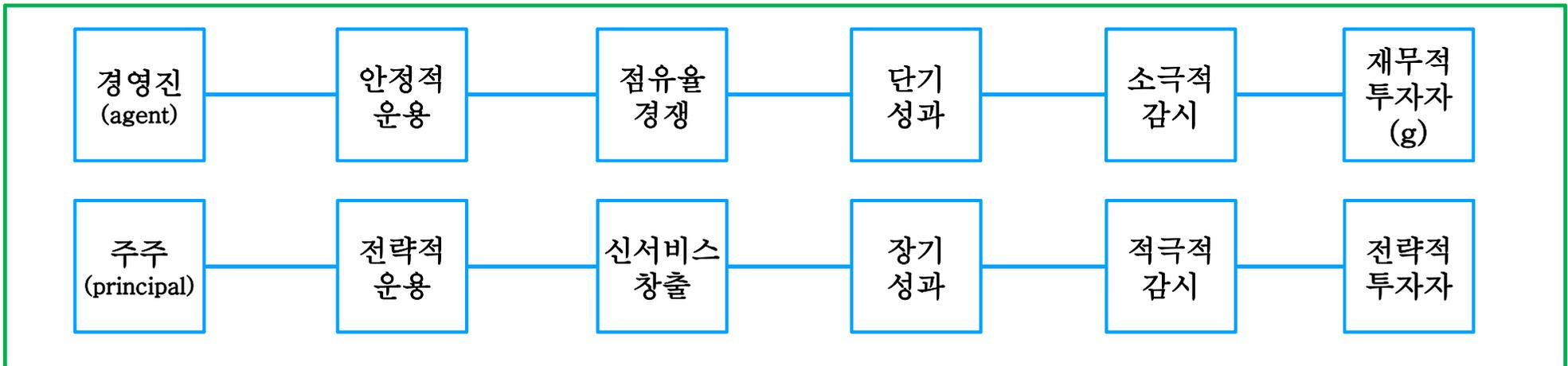
2.3 쏠림현상과 차별화 제한

■ 국내 금융산업은 대내시장 중심의 성장기조로 인해 쏠림 현상이 심화(강종구, 2010)

- 은행금융그룹의 경우 보험, 증권, 자산운용, 신용카드 등 자회사를 통한 유사한 사업구조를 유지
- 해외 업무비중이 아직까지 낮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가계대출, 부동산투자 등에 대한 쏠림 현상도 상당

■ 단기적인 성과주의 등으로 인해 중장기 전략을 통한 차별화가 아직까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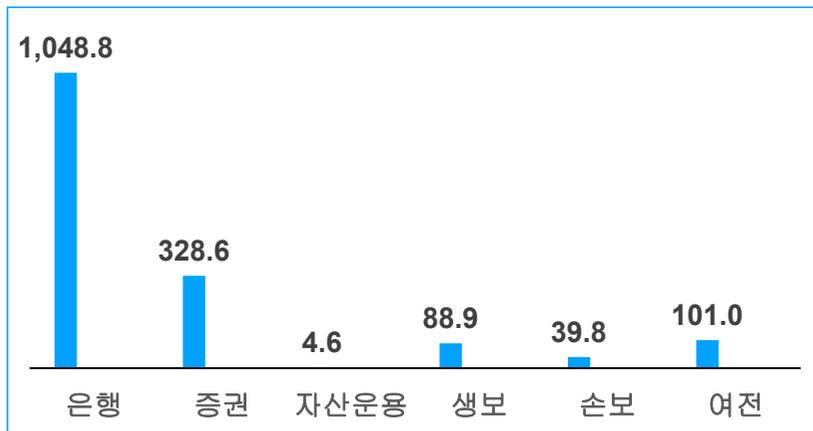
- 전략적 투자자 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 단기성과 창출에 대한 경영 부담 증가와 경쟁 심화로 금융회사 간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장기 경쟁력 제고 또는 신규 업무의 확충 등 미래지향적 투자에 비해 기존 업무를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보수적인 문화가 형성



2.4 글로벌화 확대와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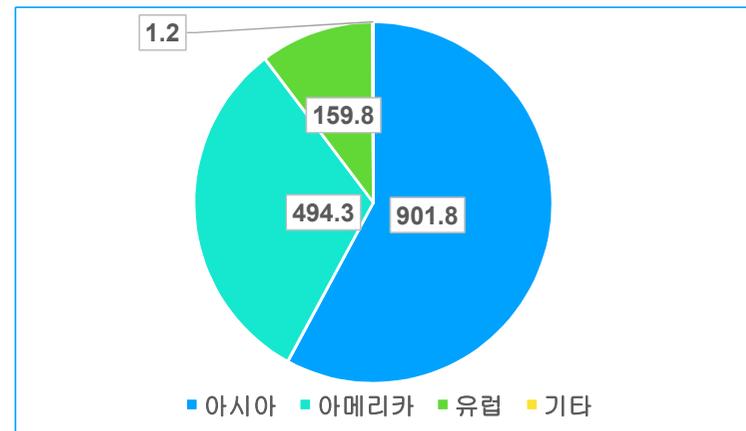
- 국내 금융산업은 개방, 자율, 겸업화에 따른 대형화에 따라 해외진출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진행
 - 사무소 → 지점 → 현지법인 등 단계적 진출뿐만 아니라 M&A 또는 합작 등을 통해 현지화 노력이 강화
 - 선진국 위주의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신흥국 중심으로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화가 지속
-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개척을 통한 역외 부가가치 창출 목적에 기인하고 아직 초입단계로 평가
 - 은행 및 캐피탈 등 글로벌 서비스는 현지화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수출’ 형태로 인식
- 반면 주요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해외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창출과 이로 인한 자본수지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 업무를 통한 금융의 글로벌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필요

업종별 해외 총자산(2017년 기준, 억불)



자료: 금융감독원

대륙별 해외 총자산(2017년 기준, 억불)



자료: 금융감독원

2.5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보완

- 국내 금융회사의 소유구조는 기관투자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등 업종별 차이가 여전히 잔존하고,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는 효과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대부분의 경우 분산 구조에 해당되나, 비은행계 금융회사는 주로 계열사에 의한 지배되는 상황
 -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소유기준 완화는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해당
 -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감사, 경영진 임면 등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소극적인 참여 등으로 경영진 또는 외부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
- 감독기준 강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략 주주의 형성이나 일반 주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자본시장 개혁이 지속될 필요
 - 기관투자자 등을 비롯한 장기투자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주 문화를 형성하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 손실부담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자본구조 형성으로 주주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
- 앞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경영성과 중심의 주주이익을 반영한 시장적 관점에서 경영책임 강화와 함께 금융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모색할 필요
 -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공공성 측면을 소유지배 구조 개선에 반영할 필요
 - 예금자를 비롯한 최우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주의 경영성과 개선 노력에 상응하여 주주의 유사시 사후 경영책임을 강화해 나갈 필요

3.1 위기극복과 정책효과 심화

- 금융정책은 위기 과정에서 위기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조기에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 외환위기, 글로벌 유동성 위기, 신용카드 사태 및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금융산업의 불안 해소 및 안정화를 위해 시장안정화 수단을 활용
 -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광범위한 시장개혁, 자본확충 지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채권안정기금 등을 활용한 시장안정, 신용정보 등 인프라 개선, 보증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도모

-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회복·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자율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정책 방향에 따른 시장효과가 커지고 금융시장의 불안 시 정책당국에 의한 조율기능이 전반적으로 확대
 -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금융정책이 시스템 안정에 기여한 반면 금융정책에 따른 시장효과가 높아지면서 정책 영향력도 확대 (전성인, 2015)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정책

외환 위기	신용카드 사태	벤처기업 부실화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자금의 조성 • 대외채무 보증 • 예금보장 확대 • 부실 금융기관 합병 • 가교 기관 설립 • 부실채권 매입 • 통합감독기구 설치 • 기업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채권 인수 • 채권만기 연장 • 채권안정기금 설치 • 부실 카드사 매각 • 개인워크아웃 • 개인파산제도 • 신용정보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관 출연 확대 • 내부시스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스왑 • 대외채무 보증 • 자본확충 지원 • 취약산업 구조조정 • 정책금융기관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 금융기관 매각 • 부실채권 매입 • 가교기관 설립 • 특별계정 설치 • 대주주 적격성 강화 • 건전성 규제 강화

3.2 글로벌 정합성 제고와 감독 강화

- 글로벌 감독기준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감독정책은 금융산업 전체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및 운영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경영성과 개선에도 기여
 -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의 대외신인도 유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의 우선과제에 해당
 - 글로벌 벤치마크 방식은 금융시장의 경영관행 및 내부시스템, 제도 등을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 ✓ 비은행권의 경우 글로벌 시장과의 낮은 연계성 등으로 인해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한 탄력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수용
- 사전 규정의 준수 및 이행, 개인별 또는 사안별 검사 및 제재 등은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혁신을 제약한 측면도 존재
 - 가이드라인 제시 또는 사안별 사전승인 방식은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이나 신규업무 확대에 있어서 감독권한을 강화시킨 반면 새로운 금융역량의 개발 및 축적에는 불리
 - 금융회사의 내부시스템이나 감독정보를 활용한 상시 관리나 사후 제재 등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감독적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

3.3 산업적 역할과 규율기반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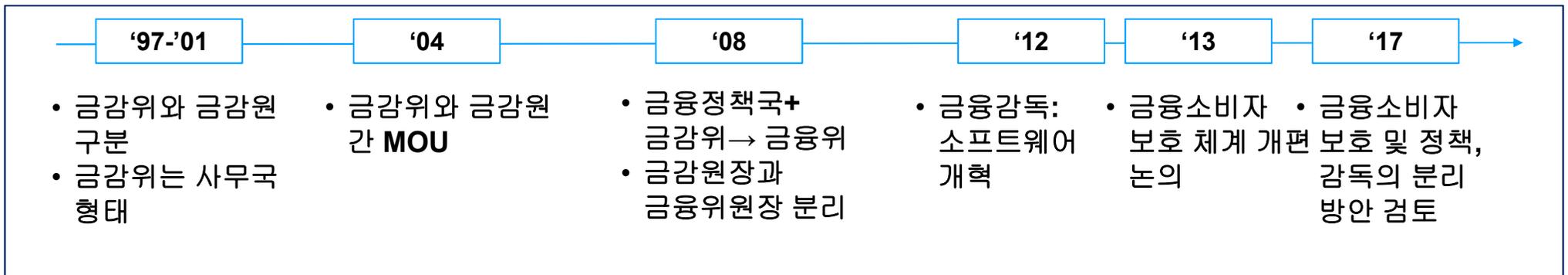
- 금융을 활용한 산업정책 또는 사회경제적 지원 등 시기별로 금융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활용하는 경향(한재준, 2017)
 - 정책금융기관의 민영화, 녹색금융, 기술금융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
 - 저소득층이나 채무불이행자 등의 신용회복이나 신용상담을 통한 회생지원 등 금융서비스 차원의 사회안정망 기능을 확대
 - 금융중심지 정책,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산업적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
- 법률적 측면에서는 열거주의 및 업권 중심 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능주의 규율체계 정립 등과 같은 장기목표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
 - 열거주의, 사전규제, 업권별 규율체계는 자본시장법 제정 등을 통해 사후규제 및 기능주의 규율체계 전환을 노력해 왔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 최근에는 핀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의 배제 또는 사전승인의 완화 등 실험적 규율체계를 마련

3.4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신뢰도 개선

- 금융소비자 보호는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둠으로써 소비자와의 사후적 분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극적인 접근을 채택
 - 판매 전 단계 또는 판매 단계의 공시기준 또는 적격성 확인 여부 등 점검방식에 의한 소비자 보호는 사후적 분쟁소지를 완화하는데 효과적
 - 절차, 규정, 확인 중심의 소비자보호는 불필요한 민원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운영위험을 완화
-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필요성(needs)이나 수용가능성, 유지에 따른 장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수익률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태적 기대효과 창출은 여전히 미흡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금융서비스 정착은 장기적으로 금융서비스 비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넓히고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과 이를 통한 금융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상황 및 필요성, 적합성,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
 - 예금 및 대출, 보장, 투자 등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체계에 반영하여 구현해 가는 원칙기준 규율방식도 필요
 - ✓ 원칙기준 규율방식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기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해당

3.5 감독체계 개편과 고려사항

- 금융감독체계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 효율성 유지와 금융안정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감안하여 개편작업이 지속
 -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분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수장의 겸직 문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등이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의 분리에 따른 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대두
-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역할분담이나 정보공유, 사후처리 책임 등이 핵심과제로 대두
 - 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현행 감독기구의 대상이 아닌 업종이나 대표기관 등에 대한 통합관리도 잠재적인 이슈
- 새로운 감독체계 정립 시 핵심과제는 시스템 안정성 유지, 건전성 제고, 소비자보호 및 시장신뢰도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당국 및 감독기관의 견제와 균형,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될 전망



목차

I. 서

II. 금융의 역할과 안정성, 그리고 한계

III.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현황과 이슈

IV.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V. 맺음말

4.1 금융의 대외건전성과 고려사항

- 국내 금융산업은 두 차례의 위기국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2000년대 이후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국면을 지속
- 현재의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 국면은 글로벌 저금리와 주요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자산가격의 상승 등 실물경제의 호황과 이로 인한 금융위험의 완화에 있음을 감안할 때 실물경제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효과에 대해 유의할 필요
- 국내 금융산업은 아직까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외환건전성 등 금융의 대외건전성(external soundness) 확보는 금융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 실물경제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 대외 금융자산의 축적 촉진과 활용방안 등 다양한 금융적 방어책을 구축해 나갈 필요
-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자산운용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는 유지·강화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단기, 유동성, 은행 중심의 외환건전성 관리 외에 자본시장을 통한 중장기 외국인자금의 유출입을 감안함으로써 중앙은행에 의한 준비금 관리와 더불어 자본시장을 포함한 외화유동성 관리체제로 확대될 필요

4.2 금융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쏠림현상 또는 안전자산 선호, 부동산 연계 레버리지 등은 금융의 안정성을 높인 반면 미래지향적 관점의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선도적 역할이 위축**
 - 정책적 측면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강화와 시장안정화 정책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적정화를 유도함에 따라 경쟁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혁신 유인이 약화
- **금융의 지속적인 확장, 대형화에 따른 양극화 구조, 기술혁신에 의한 디지털 금융의 확산, 산업계열의 비은행시장 지배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필요**
 - 위험관리 역량과 시스템 안정성 간 균형 확보를 위해서는 대출중심에서 기술금융이나 장기금융, R&D 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 개혁이 더욱 강화될 필요
 - 새로운 금융기술이나 정보를 활용한 전문 금융기관의 진입이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 규율 패러다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개혁을 모색 (WEF, 2015)
 - ✓ 업종별 특성에 초점을 둔 건전성 중심에서 시장신뢰도(market integrity)와 소비자보호 등 기능적 관점의 감독혁신 등
 - 특히 새로운 금융기술 시대에 대비한 전문 금융인력의 육성 등 금융인력의 혁신도 병행될 필요
- **실물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도 재평가될 필요**
 - 대기업 금융이나 무역금융의 정책금융 외에 구조조정이나 지역경제 지원, 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 등 실물기여도와 실패가능성이 높은 금융수요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강화

4.3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금융효과에 대한 대응

- 고령화가 장기금리 또는 성장률 측면 뿐만 아니라 저금리 하에서 성장세를 지속해 온 금융산업에도 미칠 복합적인 효과에 대비해 나갈 필요
 - 인구구조의 변화는 은퇴세대의 자금수요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
 -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은퇴 전 장기금융 자산의 축적은 금융업종 간 비중 또는 금융서비스의 변화도 불가피
-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저하 또는 소비축소 등이 장기금리의 하향 추세로 이어질 경우 금융회사의 장기부채 위험 증대와 금융산업의 성장기반 위축에 대비할 필요
 - 성장률 하락 → 저금리 → 장기부채의 현재가치 상승 → 필요자본의 증가
 - 성장률 하락 → 소득증가율 감소 → 소비 위축 → 부채 축소 → 대출 수요 감소 → 자산증가율 둔화
- 이와 관련 국내 금융산업은 가계 또는 기업 대출 등에 의한 자산성장을 적정화하고 가계 및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역량이나 성장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의 전환을 고려
 - 신탁, 자산관리, 글로벌 자산운용, 변액보험 등 투자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 관점의 금융개혁이 필요

4.4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금융사기 또는 불법금융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인식이 가장 중요하나, 법률상 미비 또는 낮은 처벌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등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중요
 - 낮은 예금금리의 지속, 대출기준의 강화, 노년층의 증가 등으로 증대될 수 있는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응책을 고려
 - ✓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 등 처벌기준 강화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자금세탁 방지 등 대내외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
-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합리적 선택이 정착될 수 있는 금융문화 형성을 위한 금융회사의 참여도 촉진 (남주하, 2018)
 - 대출, 보험, 펀드, 카드 등 핵심 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 및 지식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한계 또는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
 - 금융서비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사전적으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의 개선 또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

4.5 금융리스크 관리 및 통제의 효과성 제고

-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는 전문성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개선되어 나가고 있음은 긍정적
 - 이사회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경영진에 대한 선제적인 견제 및 통제 역할을 완전하게 영위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스크관리의 체계나 문화,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성은 개선되는 추세
 - 앞으로 감독 측면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점검이나 검사 중심에서 탈피하여 시스템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진단하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전성 감독의 혁신이 필요
-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관리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중앙회, 정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체계를 감독정보의 공유나 공동 검사, 협의체 등을 통해 협력과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
 - 금융시장 및 시스템의 불안요인 또는 위기의 파악, 시스템 위험의 점검 및 평가, 위험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발생 시 조기 대응 및 사후처리 등 단계별 금융안정성 관리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보의 공유와 평가, 협업 방식의 감독, 정책의 조율 등이 요구
 - 금융시스템 안정성 관리는 “미래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독 및 규제 정책에 반영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후처리 비용의 선제적 적립 등을 통해 공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의 제약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4.6 서민 및 지역금융 역량의 확충

- 서민금융(serving the unserved)은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성 금융지원을 통해 포용성을 높여 나온 것이 특징적
 -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은 지역금융의 활성화에도 기여
- 한편 서민금융은 경기둔화 시기나 지역경제의 위축 등으로 인해 접근성과 포용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측면에서 탄력적 대응이 요구
 - 저소득층 또는 과다부채 가계, 청년층 등을 위한 대출비용의 절감이나 한도 확대, 채무조정 촉진 등은 금리양극화로 인한 문제점과 금융거래의 단절 등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수단
 - 이와 같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성 서민금융의 재원 확보와 지원에 따른 손실분담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
 - 소외계층의 금융 피해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계하여 병행될 필요
- 지역금융의 경우 관계형 영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금융이나 지역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전국형 금융회사와 차별화된 감독규제 정책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
 - 지역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지역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역위험을 감안한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기준이나 규제방식을 전국형 금융회사와는 차별화하는 것도 대안
 - 소매형, 관계형,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모델을 모색해 나갈 필요

목차

I. 서

II. 금융의 역할과 안정성, 그리고 한계

III.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현황과 이슈

IV. 국내 금융산업의 종합평가 및 시사점

V. 맺음말

- 국내 금융산업은 위기극복을 적극적인 개혁과 더불어 실물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성장기반을 마련해 왔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금리에 의한 통화정책 공조와 글로벌 금융개혁의 주도적인 수용을 통해 금융안정성을 회복하고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 국면이 지속됨.
- 미시적 측면에서는 시장구조의 안정화와 선도금융기관의 육성, 겸업화를 통한 업종간 경쟁 촉진, 수익성 및 건전성의 제고 등으로 시장구조, 성과, 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금융의 벤치마크를 통한 글로벌 패러다임을 구축
-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은 실물경쟁력의 변화로 인한 거시금융의 여건 변화와 금융의 글로벌화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금융책임 강화와 금융신뢰도 제고를 통한 새로운 금융문화 형성을 통해 금융의 선도적 및 긍정적 기능(Zingales, 2015)을 더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 실물경제와 거시금융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 금융자산의 축적과 활용에 대비한 금융패러다임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디지털화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및 시장적, 경영적 변화가 요구
 - 규율체계는 업종별 관점에서 탈피하여 기능적 및 소비자 관점으로 전환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는 대외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 재원의 활용방안과 감독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